

# 전남도, 1946억 규모 보험료로 농업인 생명·재산 지킨다

벼 등 73개 품목, 14.9만ha 지원  
농가 부담 20% → 10%로 낮춰  
농업인 안전보험, 13.1만명 대상



농작물 재해.

전남도가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2000억원에 육박하는 농업정책보험료 지원에 나섰다.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 3종에 걸쳐 1946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농업정책보험료 지원사업비는 보조 1723억 원, 자기부담 22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24억 원 늘었다. 상품별 보험료 지원율은 80%에서 최대 100%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대상은 벼 등 73개 품목, 14만9000ha다. 2022년부터는 광역자치단체최초로 농가 부

담을 20%에서 10%로 낮췄다. 총사업비는 1660억원(본예산 기준)으로,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상해, 사망 등 사고시 실비와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올해 153억 원 규모로 13만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기본형 상품의 경우 보험료는 9만

8000원으로 농가는 20%인 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사업비 133억 원 규모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등 12개 기종이다.

지난해의 경우 집중 호우, 저온 등 7번의 재해와 농작업 중 사고 등으로 전체 1773억원의 보험금이 농가에 지

급됐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총 1497억원(보험료 1765억 원의 84%)을 지급했다. 지난해 시·도별 가입면적은 전남이 14만2251ha, 충남이 11만4980ha, 전북이 11만1213ha, 경북이 8만3415ha, 경남이 5만8621ha 순이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200억원(보험료 170억원의 118%), 농기계 종합보험은 76억원(보험료 141억원의 54%)의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의 영농 재기와 경영 안정에 큰 보탬이 됐다.

김영록 지사는 3일 “올해는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게 발생되는 만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달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도정의 최우선에 두고 선제적 전방위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울산시

#### 인니 종합 무역사절단 파견

울산시는 아세안 시장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인도네시아 종합 무역사절단’을 파견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출국해 오는 7일 귀국하는 이번 무역사절단에는 현지 한국산 수입 시장 점유율과 상담 주선 가능성 평가를 통해 ㈜글로벌엔지니어링, 씨드포닉스, 엔트라㈜ 등 울산지역 중소기업 8개사가 선정됐다.

선박용 배관 등 선박 부품을 비롯해 에너지 절감형 증류 공정 설계, 폐수 회수 및 해수 담수화 장치 설계, 내진 자재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로 구성됐다.

/울산=이도식 기자

### 경주시

#### 특색 넘치는 ‘황오재즈페스타’

경주시가 경주문화관1918광장에서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황오재즈페스타 vol.3’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황오동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도입해 관광·산권 활성화를 물론 경주시민 및 관광객의 문화향유 증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황오재즈페스타에서는 지역 전문 재즈뮤지션의 공연뿐만 아니라 공연 관람객들을 위해 로컬버스, 먹거리버스 등을 마련해 페스타 분위기를 더욱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 경남도

#### 추천상품에 175개 품목 지정

경남도는 2024년 상반기 ‘경상남도 추천상품(QC)’으로 5개 분야 175개 품목을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농산물 71개, 수산물 56개, 축산물 23개, 공산품 8개, 공예품 17개 품목이다.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은 도내에서 생산한 우수 농수축산물, 공산·공예품의 품질을 경남도가 인증하는 제도로, 1995년부터 지정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2회 지정하며, 시장·군수로부터 추천받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별 심의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지심사 등 최종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경남=이도식 기자

### 경북도

#### 사이소, 구독경제 포인트 판매

경북도는 농특산물 소포몰 ‘사이소’를 통해 신개념 유통 서비스로 떠오르고 있는 구독경제 포인트를 상품소진 시까지 판매한다.

‘사이소’에서 7만원 상당의 구독경제 포인트 상품을 구매하면 3개월간 매월 1만 포인트를 지급해 총 10만 포인트를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으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사이소’에서도 2022년부터 정기배송, 꾸러미 상품 등 구독경제 상품 발굴 및 구독경제관을 개설했다.

지자체 최초로 포인트 구독경제 상품을 개발하는 등 큰 호응을 얻어 2022년에는 8억원, 2023년은 전년 대비 22% 상승한 9억 8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 완도군, 8년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

산들바람 진산권역, 70억 사업비 확보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해양수산부 주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8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지난 5월 31일 발표된 해양수산부의 「2025년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사업 선정 결과, ‘행복한 삶터 조성 사업’ 부문에 완도군의 ‘산들바람 진산권역(소안면 진산리)’이 선정됐다.

사업 선정으로 7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 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어촌 지역 발전을 위해 그동안 공모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18년도 보길권역을 시작으로 약산, 충동, 고금, 금당, 금빛안, 봉선권역에 이어 진산권역까지 선정되어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산들바람 진산권역’의 세부 사업으로는 문화복지센터 신축, 활력 쉽터 조성, 노후 경로당 및 부녀회관 리모델링, 진산 해변공원 조성 사업 등이다. 사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귀어인 등 외부 인구 유입, 섬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8년 연속 선정되었다. 사진은 공모에 선정된 소안면 진산리 전경.

/완도군

신우철 완도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8년 연속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지역민들이 이뤄낸 큰 결실이다”고 말했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 광주시, 공공건축물 기능성·편리성 강화

종합개선 대책 수립해 운영

광주시가 공공건축물 기획단계부터 기능성을 강화해 시민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광주시는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의 기능성과 이용자의 편리성의 강화하기 위해 종합개선 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건립 절차는 입지 선정, 사업규모 및 사업비 결정, 발주방식 및 공간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는 건축기획, 설계·시공, 유지관리로 구분된다.

광주시는 공공건축물의 심미성과 기능성, 이용자의 편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건립 종합개선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건축기획 단계부터 종합건설본부가 참여해 적정 사업비, 설계 및 공사 기간의 적정성, 발주 방식 등의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한다.

또 공공건축물 건립의 설계공모 심사 방식도 토론을 통한 투표제에서 투표제와 채점제를 혼합한 방식으로 개선하고 기능성 부문의 배점이 적용된다.

공공건축물은 건축기획 수립부터 설계·시공까지 단계별 추진 시기에 따라 적정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종합개선 대책으로 예술성이 높고 기능성 있는 건축물을 건립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양수영 기자

## 포항시, 우수 스타트업 해외판로 지원

경북·포항 스타트업 글로벌 CES서 최고혁신상 수상한 10개사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투자유치 진행

포항시는 지난 1일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제6회 미래 신산업 국제무역상담회의 하나로 CES에 참여한 10개 기업의 우수한 제품 및 기술을 전시하는 ‘경북·포항 스타트업 글로벌쇼’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포항시가 경상북도, 경북경제진흥원과 함께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 참가한 우수 성과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사전에 시장 수요와 품목 경쟁력, 바이어와의 매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ES 참여 기업

중에서 2024년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미드바르, 플로우스튜디오(주) 등 10개의 유망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10개 기업들은 포항국제불빛축제 기간에 맞춰 5월 31일부터 미국·캐나다·일본·인도 등 해외 바이어와 1:1 수출 상담을 진행했고, 1일 현장에서는 원소프트다임 100만 불, 투엔 10억 투자유치 등 총 5개의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불빛축제에 참여한 해외도시들에게 포항시의 우수한 ICT 경쟁력을 선보이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글로벌 성장 능력을 가진 지역의 우수한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포항(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 부산시, 다자녀·대중교통 추가 캐시백 제공

동백전 신규사업 추진

부산시는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 수령자와 월 3만원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추가 캐시백을 제공하는 등 동백전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 수령자와 동백 패스로 월 3만원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은 동백전 규약(QR)로 결제하면, 오는 8월

부터 기본 캐시백에 5% 추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달부터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동백전으로 결제하면 2% 추가된 7%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아울러 동백전은 이달부터, 착한가격업소는 오는 8월부터 동백전으로 결제하면 5%의 추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달 말 시는 외국인 전용 동백전 앱과 카드(BUSAN PAY)를 출시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